

# 제2회 50플러스축제 공동추진단 평가회의 결과보고

---

## 회 의 개 요

- 명 칭 : 『제2회 50플러스축제』 공동추진단 평가회의
- 일 시 : 2018. 11. 08.(목) 16:00
- 참석자 : 25명(재단, 캠퍼스, 센터, 50+인생학교 관계자)
- 내 용 : 50플러스축제 운영평가

## 회 의 내 용

- <제2회 50플러스축제> 운영 평가
- 향후 축제 운영방향 논의 등

붙임 : 평가회의 회의록

## 〈제2회 50플러스축제〉 공동추진단 평가회의 회의록

---

회의 개요

- 일시 : 2018. 11. 08.(목) 16:00~
- 장소 : 재단 대회의실 및 매드포갈릭
- 참석 : 공동추진단 25명(첨부 참조)
- 내용 : 50플러스축제 운영 평가

회의 내용

- 축제운영 완료
  - 추진단에서 확정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진행 완료
  - 공간구성과 콘텐츠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축제 방문객도 현저히 증가
  - 센터와 캠퍼스, 재단이 함께 준비한 연간행사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냈으며 공동추진단 운영의 유효성 확인
- 설문평가자료 브리핑
  - 축제 운영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사후 설문조사 결과 공유
  - [장소] DDP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
  - [일정] 추운 날씨로 인해 축제일정에 대한 조정 요구가 높았음. 2~3주 당겨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 다수
  - [내용] 운영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평가 높음. 플래시몹, 출판기념회 등 이벤트 운영을 결합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으며 농부시장과의 콜라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
  - [운영] 운영사의 매끄럽고 세심한 준비와 운영이 돋보였으며 50플러스 지원인력 배치 역시 효과적. 축제 조형물과 부스, 타프트 등 축제

공간 세팅이 훌륭.

- 설문결과는 축제운영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첨부 예정

### ○ 인생상담소 운영 평가

- 상담존 운영은 컨설턴트 종합상담은 활발했지만 전문상담 부스는 한산
- 종합상담 부스도 4시 이후부터는 상담자가 감소하면서 운영효율이 저하
- 축제에서 상담을 하는 게 어울릴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필요하다는 답을 얻음. 상담신청서를 받거나 캠퍼스와 센터 재방문으로 연계할 수 있는 **상담안내와 홍보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음**
- 내년에는 **상담부스 규모 축소, 상담안내 및 홍보부스 효과적 구성 배치**

### ○ 문화놀이터 운영 평가 운영

- 장소 접근성이 좋았고 가족단위 참여가 많아 전체적 분위기 좋았음
- 부스 3개에 4개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공간이 협소해 어려움. **내년에는 센터 별로 충분한 공간이 배정되면 좋겠음**
- 윗마을 진입로가 좁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는 효과를 보였다. 시장님 라운딩 시간에는 특히나 사람들로 가득찬 느낌이어서 동행한 서울시 관계자는 엄청 놀라워 함
- 일자리도서관 맞은편에 배치되어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적으로 진행  
: 도심권의 경우 악기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운영이 어려웠음
- 추운 날씨를 고려해 부스 운영진에게 핫팩이나 담요 등 제공이 필요함
- **운영지원금도 현실화할 필요**. 영등포센터의 경우 사진인화지 비용이 상당했으며 자부담으로 충당함. 커피공감 커뮤니티의 경우 원두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서 센터에서 일부 지원함.
- 50플러스기관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 성공적. **축제를 소재로 한 적극적 사후홍보를 통해 50플러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야 함**

### ○ 일자리도서관 운영 평가

- 원형 잔디와 캠핑의자 등을 활용한 **공간구성 효과적, 사람책 참여자의**

##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

- 야외공간이라 운영의 집중도가 떨어진 점은 보완사항.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치 필요.
- 사전신청자 노쇼가 많았지만 현장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었음. 사람책 세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점 확인했지만 사전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확인 필요.
- 일자리도서관과 사람책에 대한 소개와 설명자료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음. 일자리사업을 홍보하는 50+로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설명자료를 현장에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음
- **펠로우십이나 장년인재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장접수 및 매칭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**하는 것도 방법.
- 일자리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효과적 안내방안 마련 필요

## ○ 열정동아리방 운영평가

- 공모를 통해 참여커뮤니티를 선정, 보다 **책임성있고 열정적인 참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함**. 공모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웠지만 동아리방 운영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
- **공연팀의 경우도 예상보다 훨씬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줌**. 처음부터 많은 공연팀을 배제했던 점은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됨.
- **동아리방 운영지원금을 활동의 내용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**가 있음. 패션 스타일링이나 커피공감의 경우는 기본 재료비가 많이 필요함. 운영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현실적

## ○ 50+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평가

- **플래시몹은 상당히 성공적**. 참가한 50+세대의 즐거워하는 모습 자체가 주는 긍정적 에너지가 상당했고 주변의 적극적 호응과 결합되어 **축제의 주요한 모멘텀**
- 인생학교 미니체험부스 역시 축제 참가자의 적극적 호응을 받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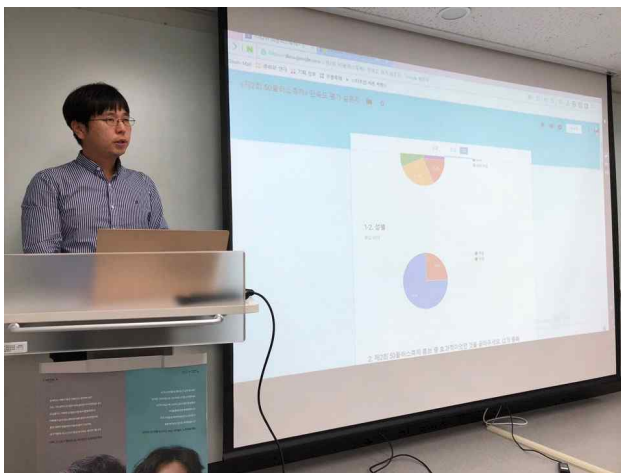
## ○ 출판기념회 운영평가

- 축제 현장의 특별이벤트로 캠페인에 참여한 18가족을 초대해 진행
-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한 60명의 참가자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행사로 마무리. 주최 측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돋보였으며 가족들과 잊지 못할 시간을 가졌다고 하며 축제를 더욱 뜻깊고 풍성하게 만든 행사
- 축제와 캠페인의 결합이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어냄

## ○ 기타

- 일장과의 콜라보가 갖는 긍정성도 있지만 동시에 50플러스축제의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.
- 외국인 관광객들이 행사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함. 축제포스터에 영문타이틀을 병기해주면 좋을 것 같음.
- 축제 일정이 꼭 주말이어야만 하는가? 50+세대를 위한 축제라면 주중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? 유동인구를 고려한다면 주말이 유리. 분명한 목적성이 없다면 주중 진행은 모객에 불리함.

## □ 평가회의 사진



설문결과 발표



운영평가 진행